

9강. 난민인권운동의 현재

조주연(M.A.P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김영아(M.A.P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고은지(난민인권센터)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이슬(난민인권센터)

사회 :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인권센터의 활동가 슬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이 9강이네요. 오늘은 ‘난민인권운동의 현재’라는 주제로 난민인권운동의 역사부터, 난민인권 활동가들의 하는 일, 현재 난민인권운동진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발굴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동료 난민인권활동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오늘 다루는 내용이 난민인권운동 진영 전체의 이야기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I. 들어가며 : 난민인권운동의 역사

사회 :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난민인권운동의 흐름 혹은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1기 (1961~1993) 난민협약가입 전, 정치적 망명자의 처리. 베트남 보트피플의 수용
- 2기 (1994~2005) 난민협약으로 난민 제도의 실질적 운영 시작, 난민인권운동의 태동기
- 3기 (2006~2012) 난민인권운동의 확장과 난민법의 실시
- 4기 (2013~2017) 난민법 이후, 난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다양한 주체들의 출현

그린: 현재 문헌상 나와 있는 최초의 난민은 1961년부터 기록이 있어, 61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임의로 4기를 나누어보았는데요. 난민인권운동의 역사가 따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여

러 출처와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본 것이니 간단히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기의 한국사회의 배경을 설명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1년부터 84년까지 개별로 한국에 온 사례들과, 75년 이후에 소위 보트피플이라고 불렸던 베트남 난민들이 부산에 도착한 사례입니다. 최초로 온 사람들은 61년 9월에 중국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례인데요. 이들은 제주도에 도착했다가, 1달 이후에 대만으로 피난을 갔었다고 합니다. 난민협약 가입 전에 한국에 개별적으로 왔던 난민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국의 송환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와 접촉을 하여서 희망지국으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었습니다.

허니 : 그리고 이후 베트남 보트 피플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75년도부터 약 20년간 2,357여명의 난민이 한국에 머물렀고 단 한명의 난민도 한국에 정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산 재송동에 있는 600여 평의 부지에 설치된 월남난민구호소에서 머물렀는데,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정확히 93년도에 월남난민구호소가 폐쇄되었는데, 그 시기가 한국이 ‘난민협약국’이 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당시 베트남 난민 재정착 과정에서 국내 이미 체류하고 있던 베트남인들이 통역을 하거나, 시설 내 문제에 개입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여전히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 : 2기는 난민 협약 이후, 즉 1994년~2005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7년간 96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난민 정책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2001년에 최초의 난민 인정 자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의 난민인권운동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한국 시민사회 난민운동의 태동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피난처’가 2000년부터 쿠르디, 미얀마와 줌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같은 해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가 개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민변변호사를 주축으로 ‘법률지원 중심의 난민지원’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주연 : 3기에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흐름이 조금씩 더 커져서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엠네스티 등의 단체가 난민 인권 활동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거나 난민인권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4기에는 난민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서울경기를 거점으로 시행되던 난민신청과 심사가 10개의 거점 사무소로 확장되고, 전국의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을 지원하는 실천과 그 주체들 역시 각 지역의 다양한 이주, 종교 단체 및 개인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시리아 내전을 위시로 한 전 지구적인 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슈들로 인해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한편에서는 적대와 혐오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환대와 인정으로 표현되면서 한국사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Ⅱ. 난민인권운동의 특수성 혹은 중요성 그리고 전문성

사회 :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난민인권활동가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시나요?

시민 :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인권보장을 위한 연대활동(난민네트워크)

정부 :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 모니터링, 정부를 상대로 한 인식 확산, 인권실태조사 등

난민 : 난민의 신청 및 정착을 조력,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 등

그린 : 저희의 업무를 크게 시민, 정부, 난민에 대한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난센의 경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중에서는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처럼 한국사회와 난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난민지원을 시작한 단체들에게 난민지원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하기도하고, 한국사회 난민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시민 분들의 문의사항에 응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허니 : 또한 정부 관련 활동은 법무부나 여러 의원들을 접촉하며 난민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난민정책을 운영하는 행정체계와 예산을 ‘모니터링’하여 시민사회에 공개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난민 분들과 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주로 기초 권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본인의 권

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강제송환, 난민신청접수거부, 억울한 민-형사 사건의 개입, 폭언 폭행, 장례, 수술, 사고, 구금, 아동, 의료, 교육, LGBT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린 : 사실 이러한 활동이외에도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재정마련과 조직 운영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개인후원만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원으로 활동에 연대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구요. 조직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활동가모임 등의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저희도 그랬지만, 이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난민인권운동가에게 필요한 ‘잠재력’ 혹은 ‘역량’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연 : 저는 난민 분들의 케이스를 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난민 분들의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그 분의 케이스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머리와 가슴에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만났을 때 활동가가 어떤 마음을 세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머리와 가슴에 남은 기억이 현재의 케이스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은 쌓이고 쌓여서 노하우와 회한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난민인권활동가들에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망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니 : 저는 활동가들에게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적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미 박해를 경험하여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과 소위 상식이라는 시각에서 온전히 그들의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거나 내 기준으로 예단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향이 제 경험에 기반해서 상황에 대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전히 이러한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최대한 의식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언제나 "만에 하나 이럴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인권운동은 매우 민감한 이슈들에 둘러싸인 당사자를 대변하는 운동이고 또한 그 당사자는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누리기 힘 든 제도적 현실적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자칫 이들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에 대해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고, 이들이 이미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감함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운동에 따른 변화가 더디다보니 지치니 않는 멘탈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린 : 김연주 활동가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기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한다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취약하고,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객관적인 '크로스 컬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활동가는 인간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상황이란 이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고,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긍정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안하든, 성격이 괴팍하든 좋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활동가나 변호사, 또는 공무원들도 거짓말을 하는 난민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을 보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는 난민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는 난민과 '친구'나 되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활동가가 보아야 할 것은 난민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의 말을 자꾸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가입니다. 실제로 난민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활동가는 왜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의사는 질병만을 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의사는 질병과 사람을 보고 더 큰 의사는 질병과 사람과 구조까지 본다고 합니다. 난민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난민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려면 이 사람이 처한 구조,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난민심사과정에서 일부 법무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혐오세력들의 목소리를 상대하다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들의 수십만 가지 ‘아니어야하는 이유’들에 대항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밀고나가는 ‘곤조’가 있어야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걸 다 잘 못합니다. 위 이야기는 제 자신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나가고 싶다는 포부정도로 이해해주 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허니 : 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재력과 역량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사람에게 장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 : 난민인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같은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아 : 인권의 측면. 난민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조력을 하려면 인권이 이렇게 침해될 수 있다는 상상력이 필요한데, 지식으로 인권을 아는 것에 비해 난민 분들이 당하시는 인권침해나 인권 유린에 대해 상상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는 학생운동하면서 도망도 쳐보고 했을텐데.. 우리는 심지어 그런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러한 차별과 폭력을 느낄 것인지가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같은 여성인데도 그 박해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영화를 보고 문헌을 접하고 당사자 얘기를 들어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상상!

또한, 난민을 포함한 인권의 이슈들, 최근에는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argue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마저도 포용해서 마음으로 환대를 느끼게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주연 : 저는 한편으로, 난민 보호에 대한 이슈 역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서로의 진정성이 충돌하는 때가 많은 거 같습니다.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는지 또는 보호가 뭔지. 난민을 보는 관점도 재각기입니다. 손잡고 협의해가는 과정이 너무 지난해서 연대가 쉽지 않고, 단체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린 : 주연 쌤이 이야기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그동안 같은 진영 안에

서의 싸움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같은 ‘난민인권’을 외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LGBT 대한 전제가 붙었고, 알고 보니 시혜적관점이 있었으며. 알고 보니 ‘poverty pronon’이고, 알고 보니 소수종교에 대한 전제가 붙더라고요. 왜 자꾸 인권에 전제가 붙어야 하는 걸까. 이런 일들은 여전히 같은 진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민 이슈는 다양한 인권의 이슈들과 교차하기 때문에, 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요합니다. 난민 운동의 또 다른 특수성이나 어려움은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존재는 항상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이주 이슈와도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들을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 ‘난민’으로 분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아 :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웃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난민 분들이 바쁘시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워져서 자기의 파티에 초대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가로서 쉬는 날이어서 축하할 자리에 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결혼식 돌잔치 집 파티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 나의 애정이 부족해서, 때로는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고, 많은 활동가들의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허니 : 저도 약간 이런 어려움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해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저희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이 1에서 10까지를 커버하는 내용의 일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다 그런건지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노력하고 좀 더 희생하면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자괴감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또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사무실에 앉아서 만나는 분들이 겪은 일들, 현재 상황들에 대해 접하고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분노하다가 막상 퇴근한 후 나의 삶은 그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문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난센에 온 것도 이 고민 때문이었어요. 현장에서 난민분들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노력 해야겠다고 마음먹고요.

하지만 막상 관계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구금과 같은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왜 더 많이, 더 잘 도와 주지 않느냐”는 반복적인 요구, 요청, 비난, 호소 등이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여성활동가로서 느끼는 경험일 수 있는데 간혹 활동가로 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성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확실치는 않고 제가 느끼는 오해였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업무를 잘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일하며 만나는 난민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크고, 나와 난센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인 부분입니다.

사회 : 활동과 삶의 경계, 혹은 지속가능한 활동?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내용 이에요. 주연님은 어떠세요?

주연 : 너무 공감돼요. 끊임없이 경계를 찾아가고 경계가 어디인가 고민되거든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틴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답을 찾으며 계속 이 일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저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정부 엑소더스 신부님께 이런 고민을 이야기 하니까 “나는 일 안 해요, 나는 일 아니고 삶이라 생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신부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린: 그 신부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다 못 만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동안 3,000건 이상의 상담을 했는데, 모든 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제가 열 명은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난민을 만나는 목적이 활동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은 난민과 일상적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맺고 싶다고 미리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관계 맺어갈 수 있을 까라는 질문으로 연결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늘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영아 : 여튼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활동가의 삶을 택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겠죠.

주연 : 저도 비슷한 느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돈 문제만 아니면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온전히 동일할 수 없지만 난민인권보호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느슨한 공동체 속에서 제 개인의 삶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는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일로 연관되지 않은 이들이 보기에 내 의식주의 수준은 염려될 수 있겠지만, 자평하기에 저는 만족스럽게 먹고 자고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일의 의미가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지치곤 합니다.

영아 : 우리를 완전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운동을 하고 우리 앞에서 하신 언니들 싱글로 하신 분들이 그런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참 우리는 짝을 만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직업과 그런 삶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너무 중요한. 엄마 나 수녀될거야도 아닌데. 가족에게도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동의, 심리적 지지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게 난민이 난민인정받기 위한만큼 시간 걸리는 거 같고. 미래에 이걸 해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직업 택했을 때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얘기가 슬픈 거죠.

주연 : 사회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직도 봉사하냐?” 저는 제가 이 난민인권활동을 하면서 쌓은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싶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혹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가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린 : 주연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활동가의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많은 기회로부터 배제 당하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권에 대한 사유가 편협하게 이루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활동이라고 했을 때, 대체로 법 중심의 활동을 떠올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 사건 승소1건. 얼마나 명확한 성과인가! 실제로 법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법무부랑 수십 통의 전화를 해대며 싸워서 바꾸는 것, 출입국 같이 쫓아가서 눈을 부라리며 따지는 것, 난민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소통을 해내는 것,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 이런 활동들은 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

다. 인권이라는 넓은 운동장에 ‘법’의 영역은 나무 한그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가로서 볼 수 있는 인권의 영역들을 더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긴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세대들은 우스갯소리로 이판에 전문가가 되려면 3일만 밤새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지속하느냐는 또 다릅니다. 후자가 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가들을 만나왔는데 90%가 마의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을 세워야할 정도로 할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3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질곡의 시기들을 버텼을까,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동료입니다. 떠나보내야만 했기에 아팠고, 남아 있기에 또 아프지만. 힘든 만큼 곁에 있어 보물 같은 동료입니다.

사회 : 잘 들었습니다. 이즈음에서 뜬금없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난민인권운동의 정의가 궁금하네요. 내가 생각하는 난민인권운동이란?

주연: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이 처음 난민이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어린 시절보다는 좀 더 성숙한 답변일 거라 내심 자부해온 게 사실이지만, 제가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오늘도 이 일을 해나가기로 마음을 다잡는 이유가 20년 전 단발머리 여중생의 결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도덕시간, 동티모르 내전 피해자들의 사진이 스크랩된 스케치북을 넘기며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악해질 수 있는지. 두려움과 분노에 제 작은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원인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난민이 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인류학을 선택한 것도 개인이 경험한 작은 우주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고 이것을 알아가고 공감하며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을 만나며 책이나 뉴스가 아닌, 그들의 말과 표정, 뒷모습을 통해 세상의 일그러진 모습을 봅니다. 20년 전 만큼이나 세상은 고장나있고 사람들은 아픔입니다. 저의 삶 속에도 안전과 파괴의 경계가 무너져내린 시간들이 있었고 저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 해낸 것도, 해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하고 이를 통해 난민들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문해보면, 역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 내 난민지원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행동

할 이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목적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하는 노력이 지역 내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작은 성취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귀한 이들과의 연대의 확장을 통해 난민인권운동은 작동합니다.

허니 : 난민인권운동은 소수자이자 이방인인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고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고,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료시민으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난민과 난민인권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Ⅲ. 난민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사회 : 현재 한국사회 난민인권운동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그린 : 한국 상황 재신청난민, 남용적 신청 난민이라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 권리를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어서, 1차 신청과정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압수되고 체류 유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침해. 더 엄격해진 구금 요건 이 존재하고 있는 한편 재정착난민 파일럿이 올해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이에 따른 향후 재정착 난민을 영구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최근 난민네트워크는 난민법 개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출입국항 문제 해결, 법무부 심사단계의 전문성 제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상녹화기기, 통번역시스템, 접수심사기관 인도적체류자/신청자/인정자 처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난민과와 논의 중이지만 전망을 보기에 아직 이른 듯합니다. 현재 법사위에 통과된 발의안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업하고 있고 앞으로는 난민네트워크 차원의 개정안 입법 운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연: M.A.P(이후 맵)은 지난 2016년 여름부터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의 의료연계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자와 달리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

서 작성을 통한 안정적 취업이 쉽지않은 이들에게는 직장보험 가입의 가능성 역시 낮은 편입니다. 진료비 부담에 병원 문턱은 높아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것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중단해야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의료기관 내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지위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등이 더해져 이들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서야 단체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맵은 올 봄부터 난민 건강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참석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건강 관련 실태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검진 결과, 추가진료 필요 시 거주지역 인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진료비 지원을 연계합니다. 또한 난민 의료통역을 돕는 시민봉사자를 위한 책자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니 : 2015년 즈음을 기준으로 난민에 대한 사회 각층의 다양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깊은 고민 없이는 막연한 동정심 내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이후 난센)은 난민당사자가 자신의 역사와 삶에 대해 직접 시민들과 대화와 토론을 나눌 기회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또한 시민단체로서 난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난민인권강좌와 같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난민의 생각과 삶을 난민의 목소리로 닮는 난민에세이 사업, 캠페인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센은 난민법 개정 등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전문기관, 생활지원을 위한 단체, 의료지원을 위한 단체 등 최근 난민 등 이주민 지원으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여러 사회기관, 단체 및 지역단체들과 연계해서 제도권 안에서 사회보장을 받기 어려운 난민들이 필요한 지원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발굴하는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회 : 활동가 개인으로서 앞으로 집중 또는 발굴하고 싶은 이슈 혹은 향후 단체들의 방향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린: 난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난민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연대하고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획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목소리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한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인재들인데, 이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발굴하는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우와 관련한 정책운동, 관련 개별법 개정 운동을 추진해나가고 싶습니다. 현재는 난민 인정을 받아도 초기정착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침 상으로 난민 지원이 허용되었으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한국국적부여여부 중심입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도적체류자, 인정자에 대한 처우 지원을 이전, 이주 처우 전반과 통합 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이고 더불어 재정착난민을 법무부가 독점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난민 처우 전반은 지자체 및 처우 관련 정부부처 협력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활동가가 더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활동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활동가들이 기쁘게 그만둘 수 있는 조직. 남아 있는 활동가도 그들을 기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대단한 사람이 인권활동가로 남아있는 짜증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짜질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동해나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또한 난센은 창립당시부터 지속해온, 반기별 통계 분석을 심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난민 제도를 시민사회에 더 풍성히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 더불어 난민과 관련한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 퍼뜨리고자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받고 있으니 활발한 기고 부탁드립니다.

허니 :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본국으로의 송환이라는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한국 정부 내지는 법원의 엄격한 난민협약 적용 및 해석에 저 역시 익숙해져서 본래 난민협약이 추구하고 유래한 난민보호의 기본 이념, 그리고 그에 바탕한 여러 해석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공부 없이 쉽게 난민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조력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불안정하게 이 과정을 해나가는 난민들에게 충분한 응원과 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 반성이 되어서, 난민으로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의 더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주연: 난민의 의료 관련 처우 개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옹호활동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 및 지역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역 내 난민지원공동체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맵은 상근직원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함께해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기자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사람들이 하나의 미션 아래 공동 작업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논의의 과정이 길고 한명 한명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민인권운동은 단체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단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최소한의 확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연대 없이는 운동의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Ⅳ. 나가며: 동료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린 :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간의 강의로 인해 ‘난민’에 대한 사유의 확장이 가능해졌는지. 그게 어떤 생각들이었는지, 그간 강의를 들으며 어떤 질문들이 자신에게 남았는지? 등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더 심화된 형태로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며 공부를 해나가는 모임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허니 : 제가 활동을 한 기간이 긴 시간이 아니지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난민인권상황을 개선해 온 힘은 난민당사자들의 역할과 노력도 컸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반성과 고민도 있었지만, 동료시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난민옹호활동, 제도개선 활동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난민인권운동이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료시민의 지지와 연대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난민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궁금해 하고 난민인권강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동료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제가 요즘 즐겨듣는 노래가 있는데 노랫말 중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난민활동가로 살면서 제 자신이 빚어가고 싶은 활동가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외국에서 지낼 때 혼자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동네 공원묘지로 산책을 가곤 했어요. 죽은 이들의 휴식공간 속에서 내 문제는 아주 작게 느껴져 위로가 되었고 온전히 침묵할 수 있었거든요. 난민관련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 때 제 곁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리고 제 스스로가 곁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름직한 동산처럼 삶의 문제를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 모두에겐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는 과장된 거짓말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난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귀를 열어 자신의 현재를 확장하고 서로에게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